

3. 삼국시대의 회화- 백제·신라

1. 백제와 신라의 회화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백제의 회화

● 기록:

△ 『양서(梁書)』 권54 열전 제48 「제이(諸夷)」 중의 백제 관련 기록
“中大通 6년(534)과 大同7년(541)에 누누이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치고 아울러 열반 등의 經義와 모시박사(毛詩博士) 및 工匠과 畫師 등을 청하므로 칙서를 내려 모두 주게 하였다.”

△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제4 성왕19년조, 상동
·梁朝의 武帝, 회화를 특히 좋아하여 많은 작품을 모았던 임금. 그의 지원 하에 산수화와 불교 회화 꽃핍. 장승요 활약 중이었다(서역에서 음영법, 요철법을 배워옴)
→서역 화법이 가미된 梁의 회화 유입 가능성

● 작품

△공주 송산리 6호분, 6세기 전반경의 塼築墳, 사신도와 일상, 월상

△부여 능산리 고분벽화(6세기 후반~7세기 전반); 사신도, 연화문, 비운문 등.
백제다운 유연성

△산수문전: 산수화의 요소 갖춤.(부여)

△무령왕릉(왕 523, 왕비 526년 졸) 출토 왕비의 두침, 다리받침, 주철의 목공예품
금박 귀갑문과 백, 흑, 금니의 문양; 봉황, 어룡, 비천, 연화문, 운문

△무령왕릉 출토 은탁잔 산악문양; 중국 한대 형식 따른 덕흥리고분이나 무용총 수렵도의 산악 그림과 연관.

2. 신라의 회화

● 기록:

△진덕여왕 5년(651) 기록에 ‘彩典’ 언급, 『삼국사기』 권38 雜誌 제7;
후대 도화원처럼 繪事 관장. 경덕왕 때 典彩署로 바뀌었다가 다시 옛 이름 되찾음.
△德曼공주(632-647); 唐으로부터 궁정화 들어옴.

● 작품

<천마도> 안장 아래로 드리워 흙이 튀는 것을 막는 다래;장니(障泥)
별의 표현, 반월형 반점, 날개, 갈기 표현 등 특징은 기린(麒麟)일 가능성 보여줌.
*기린: 상상 속의 영수(靈獸)로 왕도(王道)가 행해지면 나타난다고 함.
또 사후 세계로의 인도자이자 수호자로 봉황과 짝을 이루었다고 함.

<우마도>, 황남대총 출토 칠기 파편. 동물의 신체적 특징과 동감이 잘 묘사됨, 5~6세기

<기마인물도 채화판>, 천마총 출토

<순흥읍내리 고분벽화>

남쪽 벽에 ‘己未中墓象人名□□’의 묵서

기미년은 479 or 539, 599년

연도 양쪽에 역사상. 고구려 벽화고분 초기, 중기와 비슷한 유형.

※ 학습정리

삼국시대의 회화는 같은 시대에 같은 한반도를 무대로 하고 또 서로 교섭을 하였으면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가 모두 제각기 다른 화풍을 형성하였다.

-고구려가 힘차고 율동적이면서도 긴장된 느낌의 화풍을 이루었다.

-백제는 완만하고 유연하며 느긋한 느낌을 주는 양식을 발전시켰다.

-신라는 어딘지 정밀하고 사변적이며 엄격하고 추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처럼 같은 우리나라 회화이면서도 국가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일찍부터 나타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안휘준, 『한국미술사연구』, 사회평론, 2012

정병모, 「신라회화변천고」, 『불교미술연구』 3·4, 1997

홍선표, 「신라 회화의 재구성」, 『미술사논단』 35, 2012